

국민에게 힘이되는 정의로운 의회

2019 공무국외출장(미국) 결과 보고서

2019. 9.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목 차

I . 출장 개요	3
II . 출장 일정	4
III . 출장 결과	5
● 출장 총괄	5
● 도시별 출장 내용	8
1. 페어팩스 시의회	8
2. 링콜리아 성인관리센터	14
3. 페어팩스 아동케어센터	17
4. H Street Festival	20
5. 하이라인, 허디슨야드 프로젝트 베슬	24
6. 센트럴파크, 재활용분리 운영 사례	29
7. 프리덤 트레일	32
8. 보스턴 재개발청	37
9. 하버드대학교	43
IV . 특이사항	45

“서초구의회 의원” 『2019 공무국외출장(미국)』 결과 보고

I. 출 장 개 요

◆ 출 장 국 : 미국(워싱턴, 뉴욕, 보스턴)

◆ 출장목적

- 미국 동부지역을 방문하여 페어팩스시의회 교류 활동을 활성화하고, 성인·아동 복지시설을 견학하여 우수사례 발굴 및 민간주도 성공적 축제의 노하우 벤치마킹과 낙후된 도시철도시설의 친환경 재생을 통한 시민 편의시설 확충 사례를 조사하여 우리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출장기간 : 2019.08.29 ~ 09.05 (6박8일)

◆ 출장대상 : 11명(의원 7명, 직원 4명)

- 의원 : 안종숙, 김안숙, 김성주, 장옥준, 오세철, 허은, 박미효
- 직원 : 심경석, 이혜란, 조대형, 조승현

◆ 출장 보고 : 행정복지위원회

연번	출 장 지	보 고 자	비 고
1	공무국외출장 총괄	안 종 숙	
2	페어팩스시의회, 하버드대학교 시찰	김 안 숙	
3	성인관리센터, 아동케어센터	김 성 주	
4	하이라인, 허디슨야드 프로젝트 베슬	장 옥 준	
5	센트럴파크, 재활용분리 운영 사례	오 세 철	
6	프리덤 트레일, 보스턴 재개발청	허 은	
7	H Street Festival	박 미 효	

II. 출 장 일 정

일 시	도 시	방 문 장 소	비 고
2019.08.29.(목)	인 천 워싱턴DC	인천국제공항 출발 워싱턴DC 도착 <공식방문> 페어팩스 시의회 <공식방문> 링콜리아 성인관리센터	
2019.08.30(금)	워싱턴DC	<공식방문> 페어팩스 아동케어센터 <공식방문> H Street Festival <현장방문> 한국전 참전기념비 추모	
2019.08.31(토)	뉴 욕	<공식방문> 하이라인 <현장방문> 허디슨야드 프로젝트 베슬	
2019.09.01(일)	뉴 욕	<현장방문> 도심공원 센트럴파크	
2019.09.02(월)	보 스 턴	<공식방문> 프리덤 트레일 <현장방문> 재활용분리 등 운영사례 확인	
2019.09.03(화)	보 스 턴	<공식방문> 보스턴 재개발청 <현장방문> 하버드대학교	
2019.09.04.(수) 2019.09.05.(목)	보 스 턴 인 천	보스턴 공항 출발 인천국제공항 도착	

※ 2019.8.31.(토) 뉴욕도서관 방문하여 프로그램 담당자 투어 일정을 허디슨 야드 프로젝트 ‘베슬’로 변경 방문하였고,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종합센터 일정을 ‘하버드대학교 캠퍼스’ 현장방문으로 변경 시행하였음.

Ⅲ. 출 장 결 과

◆ 출장 총괄 : 안중숙 의장



도시는 한 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한다. 마치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융성하고 쇠퇴하며 역사를 만든다.

위싱턴, 뉴욕, 보스턴의 공통점이자 장점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설정돼 있던 도시철학과 개발의
방향성이 시간을 두고 잘 진행되었음을 의미 한다. 우리가 지난 반세기 동안
정체성의 보존이나 비전을 생각하지 못한 채, 도시로써의 외형적 모습을 갖춰
나가기 급급했을 때, 이미 미국의 도시들은 과거를 품고 현재를 살며 미래로
향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여러 번 거듭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언제나 주민이 있었다. 이번 연수에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완성형 도시로
거듭난 세 도시를 통해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었다.

☞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

폐쇄된 고가철도를 재해석해 명소로 탈바꿈한 뉴욕 하이라인 파크, 보스턴
구도심 코스를 한걸음에 돌아볼 수 있도록 조성한 프리덤 트레일 코스, 미래
지향적 조형물 허드슨야드 프로젝트 ‘베슬’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얼마나 조화
롭게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고의 전환을 통해 새롭게 명소를 개발함
으로써 침체된 구도심이 살아났고, 이는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해 결과적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했다. 아울러 도시의 정체성 또한 이어나갈 수 있었다.

주민이 바라는 도시

미국 내에서 생활수준이 높기로 유명한 워싱턴 페어팩스는 여러모로 서초와 닮아있다. 교육에 관심이 높은 주민 요구를 반영한 예산집행과 다양한 주민 친화형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또한 워싱턴 D.C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십분 활용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세계 굴지의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막대한 세수를 확보하고, 이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활용했다.

주민을 배려하는 도시

재개발 사업에 있어 주민참여의 교과서로 불리는 보스턴 재개발청 방문 또한 인상적이었다. 시간과 품이 들더라도 끝까지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줄여가고자 하는 도시의 노력과 인내심이 느껴졌다. 도시 재개발에 있어 주민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고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도시재개발은 앞으로 서초가 나아가야 할 도시재생의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민이 만드는 도시

500명의 참가자로 시작해 12년 만에 150,000명이 참가하는 지역 대표축제로 자리 잡은 H스트리트 페스티벌은 하나의 축제가 도시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 놓은 케이스다. 한 때 슬럼화가 우려되고 상업용 건물 공실률을 걱정했던 도시가 축제로 인해 180도 달라졌다. 범죄가 줄어들고 지역경제는 살아났다. 관주도가 아닌 민간이 이끌어어나가는 축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자부심과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었다. 매년 서리풀 페스티벌을 열고 있는 서초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결국 도시,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 나온다. 워싱턴 페어팩스 의회 관계자는 주민이 머물고 싶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모든 포커스를 맞춘다”고 프레젠테이션 내내 힘주어 말했다. 이처럼 도시의 ‘주인’이 ‘주민’일 때 도시는 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서초구 또한 지금부터라도 주민과 함께 도시의 정체성과 정책의 방향을 설정해 나아가 한다고 생각한다.

미 국은 정치·경제·문화 모든 면에서 선진국이다. 도시 곳곳에서 우리가 참고하고 배워야 할 것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이번 연수를 통해 얻은 것은 도시의 외형적인 벤치마킹만은 아니었다. 그보다 더 중요하게 느낀 것은 각 도시가 품고 있는 철학과 가치관이었다.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할 서초는 우리만의 도시가 아닐 것이다.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도시를 물려줄 것인가’ 더 늦기 전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숙제이다.

출장 활동사진



◆ 도시별 출장 내용

도시명 : 워싱턴DC

1. 페어팩스 시의회 / 김안숙 위원장

■ 방문개요

- 일 시 : 2019.08.29.(목) 14:30
- 장 소 : 페어팩스 시의회
(10455 Armstrong Street, VA 22030)
- 면 담 자 : Atiqa Raja 외 2



■ 주요내용

- 페어팩스 시의회는 총예산의 50% 넘게 학교 및 교육 예산으로 사용할 정도로 아이들의 복지 및 교육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한다. 64세 이상 노인인구는 11.5%에 불과하고, 35세~54세가 29.7%, 29세 이하가 26.2%로 경제활동 인구도 많고 학생들도 많은 지역이다.(2016년도 기준)
- 미국 80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한가구 수준이 11만 5,000불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취약계층도 6만 9000명에 6%정도 해당된다. 취약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휴먼 서비스나 거주지를 제공하거나 홈 리스에 대한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
- 그리고, 자전거나 보행자들을 위한 전용도로와, 스쿠터 이용이 많이 늘고 있다. 레저하고 문화, 살기 좋고 일하기 좋고, 문화 생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세금을 올리지 않고 65%가 부동산 관련된 세금을 통해서 얻은 것이라 한다.

주요 질의 및 응답

< 안종숙 의장 >

Q. 미국 입법 행정사법부의 중심의 워싱턴D.C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어 무엇보다 기쁘고, 특히 이곳은 미국 내에서 생활수준이 가장 높고, 또 교육에 대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세계 다수의 기업들이 이곳에서 활동중이고 우리 한국기업들의 지사도 많은 걸로 알고 있다. 페어팩스 시는 어느 것에 더 중점을 두고 행정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다른 위원회가 있어서 한국 분은 거기 나가 있고, 미스터문이다. 업무를 하면서 가장 느끼는 것이 방문하시는 분들이 문화나 페어팩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가면 우리측도 좋다. 서초하고 페어팩스하고 비슷하다고 했는데 굉장히 고맙다.

A. 교육에 관심 많다고 했는데 61%가 대학교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수준은 굉장히 가장 높은 수준이다. 카운티라고 하더라도 6% 정도는 빈곤선의 밑에 있는 분들이 있다. 그 분들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따지게 되면 6만 9000명에 해당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휴먼서비스나 집을 제공한다거나 홈리스에 대한 것들 그런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 그리고 저희카운티는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38%가 영어 외에 다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 2017년도에 의하면 31%가 이민자로 보고 있다.

A. 가장 출생률이 높은 인구는 엘살바도로에서 오신 분들이고, 두 번째는 인도에서 오신 분들, 세 번째는 한국분들이다. 에난데이에 한국분들이 많이 살고 있다. 시민들이 10명의 보드 멤버를 이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이다.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다양한 일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치안이다. 경찰하고 화재에 관한 일, 건설, 기획하는 것 휴먼서비스 음식과 관련된 것이다. 도서관, 공원 등 이런 것을 담당하는 곳도 있다. 이 멤버는 4년마다 선출하고 4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다. 선출이 올해 12월에 시작 되어서 내년 1월에 새로 임기가 들어가게 된다. 계속 재선을 할 수 있다.

Q. 의원들의 재선비율이 높은지 궁금하며, 교육 및 복지 정책에 대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A. 재선율이 높다. 20년 동안 10명중에서 8명 정도는 의원활동을 하지만 이번에는 5명이 더 이상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 해서 5명이 빠질 예정이다.

A. 페어팩스 시에 더 설명을 하면 교육이 최고의 우선순위이다. 미국에서 10번째로 큰 스쿨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18만 8,000명의 학생이 있고,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두번째로 안전이다. 길거리나 이웃의 안전을 위해 1,300명의 경찰들이 있고 1,300명의 화재의 진압하시는 소방대원들이 있다. 그리고 경찰하고 개념은 틀리지만 보안관이 500명정도 있다. 경관들은 보통 돌아다니면서 안전관리를 하고, 보안관들은 감옥, 수감소나 대법원에서 안전을 담당한다. 세번째는 건강과 복지이다.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원하고 있다.

A. 재생에너지도 사용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 너무 비싸지 않고 돈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 커뮤니티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7만명 정도가 빈곤선에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지역 개발이 되면 그 지역의 몇 %를 재정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할애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한다.

< 김안숙 위원장 >

Q. 페어팩스는 정치인들의 거주지로 생활수준이 높은 것으로 유명하고, 특히 500대 기업중 9대 본사가 이 곳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매력적인 도시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지?

A. 첫 번째는 워싱턴D.C와 근접성이다. 워싱턴D.C 하고 가깝기는 원하지만 워싱턴D.C 안에 들어 가기에는 원하지 않아서 버지니아주 주변에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다. 사람들이 이 곳에 살면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좋은 여건이다.

< 장옥준 의원 >

Q. 학교에 관한 교육이나 정책은 한국은 교육청있다. 페어팩스도 교육을 담당 하는 기관이 있는지? 주에 있는지?

A. 미국은 교육부가 있다. 국가적으로 필요한 정책은 시스템을 제공하면 버지니아주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연방교육부에서 하는 일이다.

Q. 인구조사를 10년마다 하는데 페어팩스는 교육·보육 등 체계적으로 잘되어 있는거 같다. 인구가 세계적으로 저출산 때문에 나라전체가 다들 신경 쓰고 있는데 이곳은 인구가 늘어 나는 추세인지?

A. 10년 동안 굉장히 많이 늘었다. 10년 전에는 100만명이었는데 지금 101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A. 이민자들도 많이 있고, 편의를 제공한다.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세금을 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곳에 굉장히 기술에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25세에서 30세가 되는 그런 인구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안종숙 의장 >

Q. 교육예산이 52%인데 교육에 초·중·고등학교 어떤 곳에 중점을 두고 있고, 한국같은 경우 굉장히 사교육이 많은데 여기는 공교육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A. 초등학교가 굉장히 많다. 중학교는 7학년, 8학년이고 그 이후는 고등학교이다.

< 김성주 의원 >

Q. 한국은 의무교육이 있는데 여기도 중·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인지? 워싱턴에는 하버드대학이 있고, 페어팩스 도시에는 어느 대학이 있는지 다양한 나라들이 유학을 오고 있는데 페어팩스 도시의 학생수가 얼마나 되는지?

A. 페어팩스 도시는 공립학교가 있는데 조지메이슨대학이 있다. 버지니아에서 가장 큰 공립대학이다. 미국에서 가장 다양한 국가들이 참석하는 대학교로 유명하다. 여기 워싱턴D.C는 대사들이 많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공립학교로 오게 되는데 그래서 다양하다. 초·중·고까지 무료이고, 대학은 비용이 비싸다.

Q. 공립대학에 유명한 과가 있는데 여기에는 유명한 과가 있는지?

A. 경제학과에 2명의 노벨상을 받은 교수가 있다. 굉장히 유명하다. IT가 굉장히 좋고 경제가 좋다. 법대도 50위 등에 드는 로스쿨이 있다.

■ 방문후기

☞ 생활수준 높고 교육에 관심이 많은 도시

- 첫 번째의 공식방문으로 페어팩스 시의회를 방문했다. 바쁘신 가운데도 관계자들께서 환대해 맞이하여 상세한 페어팩스 시의회 소개와 안내 등 파워포인트를 통화여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하여 주셨으면 질의응답에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 이번 연수를 통하여 미국 입법 행정사법부의 중심의 워싱턴D.C를 직접 보고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다. 특히 페어팩스는 미국내에서 생활수준이 높고 교육에 관심이 많았으며 마치 서초구와 같은 느낌을 주었다.

출장 활동사진



페어팩스 시의회 방문



2. 링콜리아 성인관리센터 / 김성주 의원

■ 방문개요

- 일 시 : 2019.08.29.(목) 16:30
- 장 소 : 링콜리아 성인관리센터
(4710 N Chambliss St, Alexandria, VA 22312)
- 면 담 자 : Kelly Jung



■ 주요내용

- 보스턴의 페어팩스 타운은 교육과 건강 관련을 정책 높은 지역으로 불편한 몸을 가진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노년의 건강을 책임지는 데이케어센터(요양원)를 방문
- 페어팩스내에 관리센터가 세 군데 있는데 각자의 위치가 가까운 지역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주간센터로 월-금 오픈, 7시에 5시 반까지 운영하며, 41명의 노인들이 치매를 치료받고 있는 센터였다.
- 의사와 2명의 간호사들이 있고 프로그램 관리는 세분이 계셨는데, 자격증을 가진 분은 레크레이션 등의 치료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치료를 받는 분들은 가족과 함께 살지만, 하루종일 관리·보호가 어렵고 직장을 다니는 경우 데이케어센터에서 와서 안전한 보호를 받으면서 치매프로그램을 지도하고 레크레이션과 놀이를 하고 운동도 하면서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지도를 받는 센터라 할 수 있다.
- 성인관리센터는 카운티 정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비용은 수입에 따라서 다르지만, 하루 16불이며, 많은 경우 109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개인별 차트를 통해 치매가 심한 분들은 가족과 상의해서 더 좋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성인관리센터에서는 아침식사부터 오후 나가기전 간식까지 제공되며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곳이라 비용도 저렴하지만, 기부하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
- 데이케어센터 이용하는 나이는 현재 18세부터 혼자 생활이 어렵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저소득층이면 무료로 이용할 있는 곳이다. 프로그램은 그룹으로 운동을 많이 하지만, 과격한 운동은 하지 않으며, 요가나 기구로 하는 운동 등 의사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되며, 음악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 치매를 가지고 계신 분한테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기억력이 없어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도 음악을 들으면 확실히 옛날 생각의 향수로 음악 치료가 확실히 높다 내용을 들을 수 있었고, 음악을 메인 프로그램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방문후기

체계적인 케어 정책 필요

- 페어팩스 도시는 국가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치매 치료와 예방을 관리하면서 운영하고 있었다. 서초구에서도 치매관련 치료는 다양한 정책을 제공하고 있듯이 병원내 치료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운동, 음악, 레크레이션 등의 전문성 있는 연구 사례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구민의 건강을 개선하는 케어정책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
- 모든 것을 중앙정부의 계획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서초만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건강케어 센터를 만들어 타 시도의 모범사례가 되었으면 한다.

센터 이용의 편리성 및 신뢰도 향상

- 성인관리센터는 소득에 따라 이용료를 차등하여 이용의 편리성이 높았으며,
- 약물치료보다 요가, 음악, 레크레이션 등의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 적용하여 주민들에게 신뢰도 향상

출장 활동사진



링콜리아 성인관리센터 방문



3. 페어팩스 아동케어센터 / 김성주 의원

■ 방문개요

- 일 시 : 2019.08.30.(금) 09:00
- 장 소 : 페어팩스타운티 아동케어센터
(12011 Government Center Parkway, Suite 920, Fairfax, VA 22035)
- 면 담 자 : Ruth Stover



■ 주요내용

- 워싱턴은 교육의 도시! 유아원부터 학교 입학전 놀이를 통해 학습을 준비시키는 곳으로 특별히 쇼셜스쿨로 사회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성장할 수 있는 창의성을 개발하는 페어팩스 아동케어센터를 방문하였다.
- 주정부에서 license 가진 분에게 위탁을 주어 운영하는 곳으로 시설의 규제나 직원들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은 공무원들의 감사를 받고 있었으며, 비용도 타 시설보다 저렴하게 이용하는 센터로 서초구의 구립어린이집이라 볼 수 있는 곳이다.
- 아이들이 화가 났을 때 감정을 존중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화가 난 감정도 존중해 주면서 폭력을 하지 않도록 교육시키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훈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동케어센터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책상에서 1더하기 1은 2다 가르칠 수 있지만, 놀이를 통해 체험을 하고 가르치는 방법으로 현장에서 사과를 보았을 때 사과는 어떻게 세는 것과 사과를 어떻게 기술하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면서 생각하게 하고 몸소 체험을 통해 이해를 시키는 놀이형 프로그램의 특장을 갖고 있었다.

- 아동케어센터의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이해하고 몸소 체험하는 방식도 중요하지만, 개인별 특성에 맞는 놀이를 연구하면서 선생들 간의 정보를 나누면서 의견의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 일률적인 이런 교육이 아니고 하나하나 아이들의 특성에 맞춰서 교육하는 장점을 갖고 있었으며, 주정부에서는 한 클라스 10명당 1명의 교사인데, 21명의 아이들을 채울 수 있는 교실에 4명의 선생으로 교육하는 여건을 갖고 있었다.
- 페어팩스 아동케어센터는 주정부의 민간 위탁 센터로 부모들이 마음 편하게 직장 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좋은 여건의 체계적인 방법의 관리와 선생님들의 토론과 지도방식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아동케어센터 시설이었다.
- 페어팩스 타운은 교육의 1번지 답게 교육예산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가로부터 이민온 사람이 31%라고 한다. 특히 이곳은 한국인의 이민도 높은 지역이었다.

방문후기

교육, 안전, 건강, 경제의 4박자를 갖춘 도시

- 페어팩스에 세계의 다양한 국가에서 이민을 오는 것은 교육, 안전, 건강, 경제의 4박자를 갖춘 특별한 지역이기에 세계인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 교육의 도시로 예산의 52%를 집행하고 있으며, 복지센터의 아동부터 교육을 우선적으로 정책을 실행하는 유아교육의 환경 및 주입식 교육보다 창의적인 교육을 체험하면서 놀이를 통해 사회성을 몸소 체험하는 프로그램 교육방식이 인상적이였다.

출장 활동사진



페어팩스 아동케어센터 방문



4. H Street Festival / 박미효 의원

■ 방문개요

- 일 시 : 2019.08.30.(금) 11:30
- 장 소 : H 스트리트 페스티벌
(H Street, NE from 3rd to 14th, Washington, DC)
- 면 담 자 : Anwar Saleem, Wuiping 외 3



■ 주요내용

- H 스트리트 페스티벌은 워싱턴 DC에서 가장 기대되고 많이 참석하는 일일 페스티벌중 하나다. 페스티벌은 11개 블록 길이며 14개의 무대 구역이 있으며, 다양한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테마로 프로그램되어 있다. 준비 장소에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 무용, 청소년 공연, 대화 형 어린이 프로그램, 패션, 유산, 예술, 시 등이 있다.
- 이 축제는 12년 전에 500명의 참가자 블록 파티로 시작되었으며, 현재 150,000명의 참가자 이벤트로 성장했다. 변화는 엄청 나며 그 영향은 계속되고 있다. 예술을 축제의 주요 동기로 사용함으로써 예술이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이 축제는 또한 H Street 복도의 상업용 건물 공실률을 75%에서 5% 미만으로 낮추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H 스트리트 페스티벌 (H Street Festival)은 역사적인 동네의 성장을 위한 동력으로 예술을 성공적으로 활용했다.
- 참여 예술 작품, 예술 교육을 홍보하는 정보국, DC 예술가를 전시하는 전시장에 중점을 둔 활동 방송국이 있다. 예술 프레젠테이션의 깊이와 범위는 다른 축제와 비교할 수 없다.

■ 주요 질의 및 응답

Q. 축제로 인한 지역상권의 변화는?

A. 60년도에 여기 주변이 폭동이 일어났던 곳으로. 여기 반 정도는 불탄 지역이었다. 그전에는 걸어 다니지 못했던 지역으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자체가 굉장히 큰 변화이다. 새로운 건물이 들어 와서 좋은 콘도가 들어 와 있고 어떤 곳은 아직도 그대로 혼잡된 두개가 같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Q. 축제를 하게 된 동기가 슬럼화나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거에서 출발을 한 것인지?

A. H Street festiva의 주목적은 주변의 경제를 활력시키기 위함이다. 페스티벌을 개최함으로써 주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게 주목적이며 처음에 시작때는 그냥 블록 파티라 해서 한 블록만 시작하였다. 150명으로 시작해서 가닥을 잡은 것이 로컬에서 지방적으로 계속적으로 경제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고 또 잘 진행될 수 있는 것을 두 번째로 잡았으며 만약에 여기에 비즈니스를 열려고 하는 데에 있어 잘 안될 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펀드를 한다든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A. 비지니스가 잘되면 돈이 완전히 시에 가지 않고 다시 H 스트리트로 다시 들어 갈 수 있는 연구를 하였다.(스몰기업들을 많이 유치하여 내는 세금을 기금 마련으로 하여 5년동1,500만불을 모았다) 그래서 그 많은 돈으로 재투자를 하였다.

방문후기

축제를 통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효과 방안 모색 필요

- 지역 축제가 '전시 홍보성 일회용 행사나 지자체장 치적 쌓기용으로 변질되고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국감 지적이 있었고, 난립하는 축제는 '지역 문화를 경쟁력으로 삼기보다 차별성 없는 콘텐츠만 재생산 한다'는 지적도 단골로 지적되고 있다.
- 우리 서초에서도 매년 서리풀 페스티벌 축제가 열린다. 그렇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다른 지역 행사보다 차별화되는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출장을 다녀 왔다.
- H Street festival 축제의 가장 배울 점은 지역에서 관주도보다는 비지니스를 하는 사람들이나 지역사람들을 길거리로 나오게 하는게 중점이라는 것이다.
- 전문가 및 지역 주민의 참여로 기존의 축제에서 현대적 변형이 필요할 것이며, 축제를 통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일회성·행사성 축제가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와 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출장 활동사진



H STREET FESTIVAL 집행위원회 면담



도시명 : 뉴욕

5. 하이라인, 허디슨 야드 프로젝트 베슬 / 장옥준 의원

■ 방문개요

- 일 시 : 2019.08.31.(토) 11:00
- 장 소 : 하이라인 및 베슬
(10011 New York)

■ 주요내용

< 하이라인 방문 >

- 공무국외출장은 방문도시에서 배울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적잖은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떠나게 한다. 이번 출장은 세계 정치의 중심지이자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을 시작으로 미국 최대의 도시인 뉴욕과 하버드대학과 MIT공대가 위치한 보스턴이다. 출장을 계획하면서부터 좀 더 꼼꼼하고 깊이 있는 정책 출장을 위해 “복지와 도시재생”, “공원과 재래시장 활성화”, “축제와 관광” 세 개 분야로 나누어 준비하기로 하였다.
- “공원과 재래시장 활성화” 분야와 관련하여 서울역 고가공원 “서울로 7017”의 모델이 된 뉴욕의 “하이라인파크”이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도시의 흉물이었던 고가철도를 두 명의 관심있는 청년들에 의해 시민에게 돌려준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함이었다. 하이라인 파크는 애초에 화물 열차를 위한 철도였다고 한다. 근대화의 상징이던 이 철도는 총길이 2.3km로, 트럭이라는 운송수단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하이라인의 가치도 하락되고 결국 1980년에 마지막 기차의 운행은 중단되었다고 한다.



- 1999년 “하이라인 친구들”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결성하고 단체는 뉴욕시와 주민들을 설득, 10년 지난 “더 하이라인 재생프로젝트” 시작!
총 10년의 계획 기간 3년의 시공기간을 비롯해 3차례에 걸친 단계별 준공을 통해 2009년 아름다운 공중공원으로 부활했다고 한다. 공원을 보유한 도시는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도시와 녹지공간이 각각 구분되어 있기 마련이다. “하이라인”이 특별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일상과 심의 경계를 나누지 않았다는 것이다.
- 2009년 자연, 예술 디자인을 체험하는 복합 공공 공간으로 문을 열어 뉴욕에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도시 재생 사업의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경제적 효과는 약 20억 달러 수준으로 어느새 뉴욕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다.
- 내가 본 “더 하이라인 파크”는 전망 좋은 계단에 앉아 주변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바로 눈앞에서 고층 건물을 본다는게 뭔가 색다른 기분이었다. 자유롭게 앉아서 벽에 그려진 작품 감상과 중간 중간에 독특한 그림과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고 또 중간 중간에 엘리베이터 계단이 있어 언제든지 내려가고 올라올 수도 있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구획에 대한 정리가 확실한 뉴욕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일직선 도로이다.
- 쉬고, 사진을 찍고, 대화하며 휴식 취하는 사람들, 버려진 철도와 그 틈을 뚫고 자란 야생풀들, 멀리 건물에 비치는 하늘 구름마저도 아름다웠다. 하이라인 파크는 녹색정원인데 조금만 눈길을 돌리면 높은 고층의 건물들이 주변을 감싸고 있는 낮설면서도 아늑한 공간이었다. 구간 전체를 걷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30분 정도 걸린다.

- 하이라인의 가장 큰 특징은 공원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자금 대부분이 지역민들의 기부와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약 30년 전 공원 조성을 주도했던 하이라인의 친구들이 운영을 도맡아오고 있으며 관리비 90%이상을 시민들의 기부금과 멤버십 후원, 대관료 등으로 충당하면서 외부 자본에 흔들리지 않고 정체성을 지키며 야생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한 채 천천히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속가능성을 위해 가장 신경 쓴 유지, 관리, 운영 방식 또한 눈에 띈다.
- 가뭄에 강한 식물을 심어 물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급수할 때는 날씨와 식물 종류에 따라 조절 또한 낙엽 지푸라기 정원 쓰레기는 퇴비로 재활용하면서 탄소 발생도 줄인다.
- 뉴욕 하이라인의 모델이 된 서울역 고가 공간 2019년 도심내 고가도로를 철거하지 않고 조성한 “서울로”라는 도심 속 공원이 있다. 서울로 고가도로를 개조하여 만든 보행 공원이다. 1970년 8월 개통하여 1980년대 남대문시장 그리고 청파동과 만리동 봉제공장 등등 상인들이 상품을 싣고 나르며 경제성장을 견인하는데 든든한 다리 구실을 했다. 하지만 1980년 이후 노후화되면서 안전성에 문제가 생겼다.
- 이에 2014년 미국 뉴욕 하이라인 파크를 모델로 서울역 고가도로를 “사람 중심의 녹색 시민” 공간으로 재생, 2017년5월 “서울로7017”이란 이름으로 개장하였다. 하지만 서울역 고가도로 폐쇄에 대해 남대문시장과 만리동 봉제공장 상인들이나 운송업자들을 위한 대체도로 마련을 위한 논의를 얼마나 했고 서울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한 노력은 또 얼마나 고민 하였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 허디슨야드 프로젝트 베슬 시찰 >

- 세계 5대 도서관중 하나인 뉴욕 공립도서관을 방문하여 선진 도서관화 및 시설 등을 투어할 예정이었으나 휴관으로 참여하지 못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도서관 일정 변경하여 허디슨야드 프로젝트 베슬을 시찰하였는데 허디슨야드 부지의 높은 건물들 사이에 벌집 모양을 연상시키는 건축물이다.
- 뉴욕의 주변을 새로운 높이에서 새로운 각도로 다양하게 볼수 있어 향후 뉴욕을 찾는 모든 사람들의 명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 관내에도 이런 특이하고 다양하게 디자인된 건축물로 변화된다면 많은 관광객들이 서초구를 관광 명소로 기억할 것이다.

■ 방문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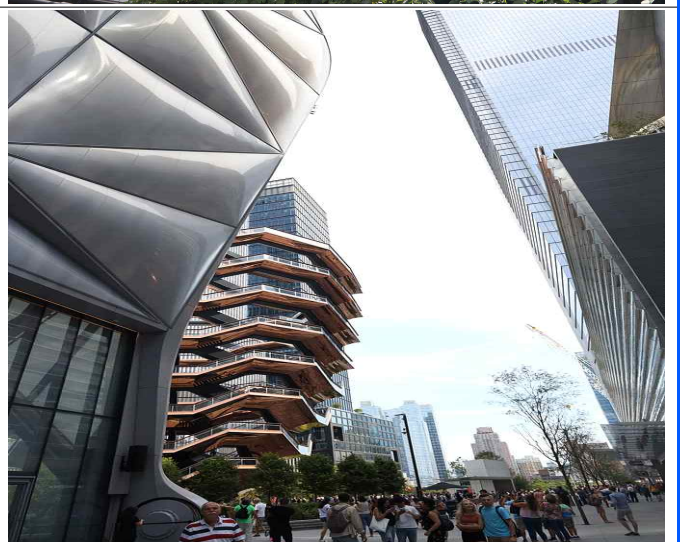
☞ '사람'에 기반을 둔 도시재생과 보행 친화도시 조성에 주목

- 이번 출장을 통해 많은 생각과 부러움을 가지고 돌아왔다.
'서울로'가 햇빛이 오래 닿는 곳, 바람이 많이 부는 곳, 그림자가 자주 지는 곳 등 유지 할 수 있는 공원이기를 바라고, 서울은 야생 그대로의 자연은 어려운 도시이다. 자연을 갈망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장소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 세계는 지금 도시재생에 주목하고 있다.
개발과 혁신에 관한 주제에 대해 획일적인 관심을 가졌던 시대를 지나 "사람"에 기반을 둔 도시재생과 보행 친화도시 조성에 주목한다.
- 도시는 하나의 생명체와 같이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하이라인 파크, 베슬은 어디인지 곰곰이 생각해 본다.

출장 활동사진



The High Line 방문 및 허디슨야드 프로젝트 베슬 시찰



6. 센트럴파크 및 재활용분리 운영 사례 / 오세철 의원

■ 방문개요

- 일 시 : 2019.09.01.(일) 10:00
- 장 소 : 센트럴파크 등
(14E, 60th St, New York, NY 10022)



■ 주요내용

< 센트럴파크 시찰 >

- 미국 뉴욕주 맨해튼에 있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도시중심부의 공원이다.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으로 면적이 3.4km²에 이르며(상하 길이 4.1km, 좌우 길이 0.83km) 맨해튼 구역의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한다. 해마다 약 4,000만명의 방문자가 이곳을 찾으며 미국 전체 구역을 통틀어 가장 많은 방문자가 오고가는 공원으로 손에 꼽힌다. 특히 공원 이용객의 대부분(75%)는 인근 주민과 직장인들이라고 한다.
- 공원내에는 총면적의 12.5%를 차지하는 재클린 케네디 오나시스 저수지와 메트로폴리탄박물관, 할렘 미르 호수, 베데스다 분수, 가수 존 레넌을 기념하는 스트로베리 필즈 등의 명소로 유명하며, 각종 운동시설을 갖추어 누구나 방문하여 레저를 즐길 수 있다.

< 재활용분리 운영 사례 >

-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다니면서 대형마트에 재활용 공병 머신기가 설치된 것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실제 공병 보증금을 내야하는 제품을 구입하면 영수증에 표시되고, 해당되는 공병을 머신기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플라스틱, 캔, 유리병으로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었고, 공병을 반납·완료하고 보증금이 표시된 영수증을 갖고 안내데스크쪽으로 가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경 보존 및 쓰레기 배출 방법 등을 서초구 관내에도 검토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방문후기1)

센트럴파크의 공원관리 문제 해결방법 : 민관파트너십 도입

- 센트럴파크는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는 공원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관리문제로 골치를 썩었다고 한다. 그래서 뉴욕시는 CPC(Central Park Conservancy)라는 민·관 협력 파트너십을 도입해 이 문제에 대응했다고 하는데, 이 기구는 관리비용으로 민간기부금의 팔할을 조달하며 나머지는 시가 부담하고 Matching fund 형식으로 매칭 금액에 따라 뉴욕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액수도 증가하는 방식으로 관리되었다고 한다. 시민의 참여와 관심 속에 1980년대에는 센트럴파크 본연의 기능을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한다.
- 공원조성은 대규모사업이므로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하지만,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원을 조성한 뒤 관리주체를 뉴욕시와 같이 민·관 협력 파트너십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1) 참고자료 : 환경공간정보서비스, 서울연구원

출장 활동사진



센트럴파크 시찰 및 재활용 분리 운영사례



도시명 : 보스턴

7. 프리덤 트레일 / 허은 의원

■ 방문개요

- 일 시 : 2019.09.02(월) 14:00
- 장 소 : 프리덤 트레일
(Boston Common Visitor Information
Center at 139 Tremont Street)
- 면 담 자 : 투어 담당자



■ 주요내용

- ‘프리덤 트레일’은 보스턴 명실상부 최고의 관광코스로, 미국 독립역사와 식민시대 역사의 여정을 담은 축소판이다.
- 보스턴은 미국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도시로서 다운타운 주변으로 역사적으로 기념될 만한 건물들이 많았지만, 1950년 당시만 해도 유난히 좁은 도로 폭과 미로처럼 얽힌 골목으로 인해 관광객이 보스턴의 명소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 1951년 3월 「보스턴 헤럴드 트래블러」지 편집장 윌리엄 스코필드는 명소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표지판을 따라 이동하는 로드길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고, 당시 보스턴 시장이었던 존 B. 헤인스는 이러한 의견을 발전시켜 명소로 가는 길목을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게 되었다. 이후,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변화를 거듭해 지금의 ‘빨간벽돌길’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 현재 프리덤 트레일의 명소는 1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빨간벽돌길’을 따라가면 명소를 모두 만날 수 있는데, 사려 깊은 아이디어 하나가 보스턴 명실상부 최고의 관광코스를 탄생시켰고, 특별히 미국의 역사를 한 길로 엮었다는데 매우 의의가 있다.
- (운영구조) 1964년 비영리재단인 「프리덤 트레일 재단(Freedom Trail Foundation)」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958년부터 1992년까지는 시민 중심의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유지관리 되어 왔다. 재단에서는 현재 프로그램 개발, 이벤트, 마케팅 등 다양한 방식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 관광객들에게 흥미를 주기 위해 입기 시작한 캐릭터 복장은 프리덤 트레일의 또 다른 상징이 되었다. 프리덤 트레일 재단은 재단의 자원과 자원봉사자를 근간으로 시민 주도의 민간운영의 성과를 보여준 우수한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 (유지관리) 프리덤 트레일이 처음 도입될 때는 나무 표지판을 만들어 세웠었는데 40년 가까이 사용하게 되면서 급격한 노후화 철제 표지판으로 한 번 교체를 하게 되었다. 이후 관광객들이 많아짐에 따라 지역 상인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 그리고 또 한 번의 특색 있는 아이디어 재구성을 통해 빨간벽돌길의 프리덤 트레일을 구성하게 되었다. 현재도 재단에서 다양한 여행프로그램은 물론, 관광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관광 콘텐츠 등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관광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 하고 있다.

방문후기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프리덤 트레일

- 프리덤 트레일은 새로운 자본이 투입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역사적 명소를 관광상품으로 재구성 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 트레일은 구성에 앞서 코스의 입지와 특성 및 연관성을 분석해 구성하는데, 미국 식민시대와 독립전쟁의 역사를 보스턴 도심 한가운데 연결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 * 트레일은 흔히 자연 및 생태적 자원을 토대로 한 ‘자연중심형 트레일’과 도시 역사자원을 토대로 한 ‘문화중심형 트레일’ 그리고 자연중심형 트레일과 문화중심형 트레일 요소를 함께 활용해 구성한 ‘복합형 트레일’로 유형을 세분한다. 프리덤 트레일은 ‘문화중심형 트레일’에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²⁾(서인원, 2012).
- 서초구는 문화예술의 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다. 특별히 2019년에는 서초 최고의 명소로 뽑히는 예술의전당을 시작으로 반포대로 일대가 음악문화 지구로 선정되면서 ‘트레일’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 2019회계년도 서초구 관광예산은 231,243,000원으로 구청 예산의 0.04%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음악문화지구 지정과 고속터미널 지하쇼핑 센터, 면세점 유치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를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예산 증액 및 관광 활성화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2) 참고자료 : 서인원(2012). 대구 도심 트레일 개발 방안. 대구경북연구원

-
- <keymap>**
- 시흥 문화예술 조성**
- T자형 문화예술 거리 조성**
- 문화·예술 행사, 지역축제 개최
문화·예술활동 지원**
- 익기거리
문화시설, 익기반마을 등
집적 유도**
- 체육시설, 박물관,
야외 공연장 등
커뮤니티 공간조성**

☞ 자발적인 시민 참여의 프리덤 트레일

- 35 -

출장 활동사진



프리덤 트레일 방문



8. 보스턴 재개발청 / 허은 의원

■ 방문개요

- 일 시 : 2019.09.03(화) 10:00
- 장 소 : 보스턴 재개발청
(Boston One City Hall Square, 9th Floor)
- 면 담 자 : Brian P. Golden



■ 주요내용

- 보스턴은 1925년부터 1955년까지 낙후된 도시였다. 보스턴은 항구 중심 도시로서의 역할에만 치중되어 개발이 되지 못했으며,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의 10년 동안은 도시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는 침체시기를 거뒀다. 그런 과정속에 보스턴의 인구는 1/3이 감소했다.
- 백악관에서도 보스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었지만 전쟁 이후 미국의 경제상황은 매우 악화되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보스턴 시장은 보스턴시 자체의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는 재개발청 설립을 추진했다. 결국 1957년에 보스턴 시와 메사추세츠 주의 법을 통해 설립 된 정부기관 ‘보스턴 재개발청’이 설립되었고, 부동산 개발·토지사용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수많은 결정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 우리나라에도 ‘새만금개발청’과 같은 국가기관이 존재하지만, 보스턴 재개발청은 부동산 개발에 대한 많은 법적 권한을 부여받았는데 주목할 만하다.
- 보스턴 재개발청은 핵심 사업은 크게 4가지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1	약 1,858㎡ 이상의 연면적에 이르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인허가 여부 결정
2	보스턴 도시계획사업 시행
3	약 1,021,933㎡의 부동산 관리, 주택, 일자리 등을 제공하여 보스턴 시에 세수입을 제공
4	보스턴 주민들에게 직업 교육 등을 제공

- 보스턴 재개발청의 다음 8가지의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 첫 째,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인허가권
 - 둘 째, 보스턴 개발청 소유 부동산의 매입, 매각 및 임대
 - 셋 째, 시의 중요 개발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시 정부와 협력하여 재산세 할인 제공
 - 넷 째, 토지 용도변경에 대한 추천권(용도변경 권한은 없음)
 - 다섯째, 경제개발 목표를 위해 시장가격 보상 후 사유지를 수용하며 드문 경우지만 강제수용 할 권한을 가짐
 - 여섯째, 전반적인 광역계획 및 특정지역의 구체화된 지역구계획 등 모든 도시계획을 시행

이 밖에 나머지 두 가지는 부여된 법적 권한이기보다 보스턴 재개발청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권한이다. 먼저, 시장가 주택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포함’과 상업시설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보스턴 주민을 위한 직업교육 기금 조성’을 의무화 하고 있다. 보스턴 개발청은 개발사업에 대한 권한 뿐 아니라 저소득층 및 주민들과 상생에 대한 의무 권한도 함께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보스턴 재개발청의 가장 큰 성과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재개발청 도입 당시 최악으로 치달았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이다. 전세계적으로 인구 감소가 큰 골칫거리가 된 와중에도 보스턴은 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2030년까지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특히 2014년 결과치보다 2018년 결과에서 인구증가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실제 결과가 더욱 주목된다.
- 2018년도부터는 포괄적 개발 정책을 시행해 2,600채에 가까운 저소득층 주택을 건설하고, 미화 137.1억달러의 주택기금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금 설치를 위한 법개정도 준비하고 있다. 보스턴 재개발청을 법개정을 통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질의 및 응답

< 오세철 의원 >

Q.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을 텐데, 그런 주민들은 어떻게 설득 하는지?

A. 반대하는 주민들과는 대화로 꾸준한 협의 시간을 갖는다. 1년에서 2년까지 걸리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과정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런 역할(주민대화)을 맡아서 진행하는 팀들이 있다. 이 팀들이 계속 소통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허락을 받는다. 실제 뉴욕과 시애틀 등 다른 도시들을 비교해 봤을 때 보스턴처럼 대화로 풀어나가는 그런 도시는 없다고 한다.

Q. 한국은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는 덜하지만, 일반주택 지역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 마지막까지 개발에 대한 조율이 안 되기도 하는데, 보스턴도 몇% 이상이면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

A. 그런 %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보스턴에는 많은 시민단체가 있다. 주민 대표들과 시민단체와 원만하게 풀어나가는 것을 우선순위로 한다. 그리고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면 결국에는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대화로 풀어 나간다.

< 장옥준 의원 >

Q. 미국은 주거형태가 주로 어떻게 되는지?

A. 대부분은 직원들도 그렇고 아파트에 거주한다. 인구가 계속 증가해 싱글 홈을 만드는 것은 자제한다.

< 허은 의원 >

Q. ‘디벨로퍼’에게 많은 권한과 역할이 주어질 것 같은데, 이러한 전문 인력은 어떻게 구성하는지?

A. 보스턴에는 하버드대학을 포함한 30개 대학이 있다. 이곳에서 공부하는 학사, 석사, 박사 학생들 중 원하는 학생들에게 직업훈련을 시켜주고 재개발청에서 트레이닝을 받은 후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다. 실제로 보스턴은 젊은층이 많아서 이곳에서 일을 하려는 학생들이 많다. 해외에서 보스턴으로 공부하러 왔다가 이곳에서 정착하는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일하게 되었다. 다만, 이곳은 사실상 공무원이나 마찬가지로 때문에 임금의 한계가 있다.

< 안종숙 의장 >

Q. 보스턴 주민들을 위해서도 직업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직업교육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인재들을 확보했는지?

A. 3,500명 정도가 이런 훈련에 참여하고 일자리 연계가 되었다고 한다. 현재 미국의 경우 일자리는 많은데 반해 일을 할 사람들이 부족한 형국이다. 그러다 보니 기초 훈련만 해도 일자리 연계가 쉽게 된다.

Q. 서울도 주택이 많이 부족해 나름 분석을 많이 해 소셜믹스 형태를 추진 하기도 한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족에는 가산점을 주는 혜택도 있는데 보스턴은 어떤지?

A. 소득과 가족 인원이 가장 중요하다.

방문후기 및 구정 활용 방안

주민과의 상생을 통한 재개발 사업

- 보스턴 재개발청이 각 나라의 재개발과 도시재생 사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나 대부분이 개발측면의 우수사례에 집중하는 것도 사실이다. 금번 출장에서는 보스턴 재개발청의 숨은 가치인 ‘소통’에 대해 주목했다.
- ‘Brian P. Golden’ 면담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보스턴의 재개발(도시재생)은 사업의 가장 큰 토대는 주민들과의 상생에 기반 했다는 점이다. 주민들과 소통하는 전담 팀을 마련해 두고 1년에서 길게는 2년까지 소요되는 주민과의 협의 시간을 소홀하지 않는 점에서 재개발청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 보스턴의 재개발과 도시재생 사업이 전 세계 도시재생의 우수사례로 꼽히며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및 역량강화 측면’의 긍정적인 선례로 명성을 이어오는 이유도 다 이러한 소통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 서초는 재건축이 가장 활발한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다양한 주민 의견과 민원도 상당하며, 의회로 접수되는 민원 중 재건축과 관련한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서초구의회는 소통강화와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해 지난 12월「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민원에 대해 집행부에 의존하던 형태에서 나아가 의회 차원에서 민원자문단을 구성해 주민소통 기능을 강화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 기존 민원자문단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실효성을 제고한다면 의회의 주민 소통 기능에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출장 활동사진



보스턴 재개발청 방문



9. 하버드대학교 시찰 / 김안숙 의원

■ 방문개요

- 일 시 : 2019.09.03(화) 14:00
- 장 소 : 보스턴 하버드대학
(Cambridge, MA)
- 면 담 자 : Alice Lee



■ 주요내용

- 우리나라에서 제일 명문대인 서울대가 있다면, 미국 동부지역에서 8개 명문 사립대학중 가장 오래된 하버드대학교는 1636년에 설립되었다. 영국시민지때 시작된 대학교로 9명 학생과 1명의 교수로 목사 양성을 위하여 시작되었다고 한다.
- 하버드대학교 현장 시찰은 광장부터 시작해서 하버드 홀, 매사추세츠 홀, 유니버시티홀, 존하버드 동상, 사이언스센터, 메모리얼 홀, 메모리얼 교회, 도서관, 신입생 기숙사, 학생체육관 등 주요 건물을 둘러보았다.
- 세계 및 미국내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배출한 대학교로 유명하다. 대통령, 노벨상 수상자, 대법관, 총재 등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고, Alice Lee를 통해서 주요 건물의 역사와 특징들을 상세히 듣고, 건물마다 연관된 유명한 인물에 대하여 새롭게 느껴졌다.

방문후기

☞ 교육환경에 대한 공감대 형성

- 하버드대학에 다니고 있는 한국인 학생을 섭외하여 안내를 받았다.
한국인 학생은 중학교때 유학을 와서 하버드대 심리학과에 재학중이라고 했는데 정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며, 대학을 견학하고 설명을 듣고 교육에 대한 많은 것을 배우고 공감할 수 있었다.

출장 활동사진





하버드대학 캠퍼스 투어




IV. 특 이 사 항

■ 복지분야

현 황	시 사 점
 	<p>페어팩스 아동케어센터는 친환경 목재·모래를 사용하여 오감발달은 물론,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 놀 수 있게 되어 있음.</p> <p>⇒ 서초구 관내 어린이집이나 돌봄교실에도 친환경 목재·모래를 비치하여 부모돌보미 모두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게 되길 희망함.</p>

■ 교통분야

현 황	시 사 점
	<p>자전거이용자가 버스로 갈아타는 경우 자전거를 버스 앞에 실을 수 있도록 교통편의시설을 갖추</p> <p>⇒ 자전거와 대중교통을 번갈아 이용하기 쉽도록 교통편의시설을 확충한다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p>

축제와 관광분야

현황	시사점
<p>< H Street Festival 축제 지역 ></p> 	<p>H Street Festival 개최 시 가로등 현수막을 고정식(집게) 형식 간판으로 사용</p> <p>⇒ 바람이 불어도 휘날리지 않아 지나가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눈에 잘 띄어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p>
<p>< 서초구 페스티벌 축제 현수막 ></p> 	<p>⇒ 서리풀 페스티벌 현수막 게재 시 활용하면 도시미관 향상 기여 및 축제시 재사용도 가능할 것임.</p>